



5면

‘세해, 디지털혁신으로 ICT산업 선도’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3년 1월 16일 월요일 (음 12월 25일) 제318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민생 직결대책 빈틈없이 해야”

김 지사, “따뜻한 설 명절 만들기 최선 다해달라”
지역균형발전 위한 분권 실국별 의제 발굴도 요구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13일 도청 회의실에서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 발표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등을 점검하며 전북도민의 따뜻한 설 명절 만들기

김 지사는 “이번 설 명절은 코로나19 방역기조 하에 물가안정과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에 집중하면서 도민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설 명절을 즐길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최우선”임을 강조했다.

특히 “공사대금 및 임금체불 해소, 명절 교통대책, 생활쓰레기 수거, 응급 의료와 종합상황실 운영과 같은 민생 직결대책은 이행계획을 100% 이상 실천해 도민의 정책 수용성을 높여달라”고 말했다.

이어 “명절기간 동안 분야별 비상근무를 철저히 하고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보고하고 대응하자며 빈틈없는 명절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김 지사는 “대통령 지역공약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처활동에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전북의 대통령 지역공약은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46개 세부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6조원 규모다.

이에 국가예산 확보 및 사전절차 이행은 실국장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도지사의 활동이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보고해 어려운 현안은 지사가 직접 현장을 뛰며 해결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김관영 지사는 “정부 정책기조가 지역 균형발전에 관심을 갖고 권한이양을 추진할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를 발판으로 기업유치, 환경, 노동 등 지방분권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전북도가 희망하는 권한이양을 추진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김재훈 기자



김관영 도지사가 지난 1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임실119안전센터를 방문해 설 연휴기간 소방안전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민생안전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을 격려한 뒤 현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민중 고유의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육군 제35보병사단을 비롯한 군부대와 임실119안전센터 등 총 9개 기관을 위문 격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설 연휴기간의 지역 안보와 소방안전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민생안전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군 장병과 소방공무원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13일 제35보병사단과 임실 119안전센터를 방문

‘나눔으로 행복한 설 명절’

전북도 지휘부, 군 장병·소방공무원 위문
김관영 도지사 “굳건한 대비태세 확립” 당부

한 자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군 장병 및 소방관들이 있어 든든한 마음”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또 “도민과 귀성객들이 안전에 대한 확신 속에서 행복한 설 명절과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굳건한 통합방위와 안전에 대한 대비 태세를 확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도 간부공무원들은 오는 18일까지 육군부사관학교, 공군38 전투비행전대, 김제 김산동119안전센터 등 군부대·소방 총 9개 기관을 순차적으로 격려 방문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속 기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국군장병 성금 모금액 등으로 위문하며 나눔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김재훈 기자

도 과장급 간부공무원들, 고향사랑기부 동참

고향사랑기부금 · 농협은행을 통해 도내 시군 등에 기부 완료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맞춰 전북도 간부 공무원들이 연승(텔레이) 기부 인증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3일 전북도(도지사 김관영)에 따르면 과장급 간부 공무원들은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에 앞서 고향사랑기부 홍보 퍼포먼스를 펼치며 기부 동참을 응원했다. <관련사진 3면>

전북도 공무원들은 새해 첫 간부회의와 이번 연찬회에서도 텔레이 기부 인증을 이어가며, 도민과 출향인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제도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간부공무원들은 자율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lovegotyong.gor)’ 누리집이나, ‘농협은행’에서 기부에 참여했으며, 대부분 각자 고향 및 연고지역 등 도내 시·군에 기부를 마쳤다.

또한, 전북도는 설 명절에 고속도로 IC, 휴게소 등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마

을별 홍보물 배포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해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알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황철호 도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임에도 올해 처음 시행되어 많은 도민들께서 제도를 잘 모르고 계신다”며, “설 명절에 고향을 찾는 출향도민들께서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북도 전 직원이 홍보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하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및 기부금액의 30%에 상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김재훈 기자

전북청년 지역 정착 지원사업 ‘START’

전북 청년 합성(함께 성공) 패키지 일한... 도, 내달 24일까지 참여자 신청접수

지원대상 선정시 월 30만원씩 1년간 신용카드 연계 포인트 방식으로 수당 지급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본격 추진에 나선 전북 청년 합성(함께 성공) 패키지 사업 1단으로 ‘전북청년 지역 정착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전북도는 지역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의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전북형 청년수당인 ‘전북청년 지역 정착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본 사업은 농업, 중소기업 등 지역 산업에 종사하면서 도내 정착 의지가 있는 청년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 500명 규모의 시범사업 시행

이후 참여자의 높은 만족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힘입어 매년 사업대상을 확대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수준(중위소득 150%이하 → 180%이하)과 재직기간(1년 이상 → 6개월 이상)을 완화해 지원 규모를 3,000명으로 확대했다.

시군별 인원은 전주 1,338명, 군산 441명, 익산 480명, 정읍 144명, 남원 102명, 김제 105명, 완주 138명, 진안 24명, 무주 27명, 장수 24명, 임실 27명, 순창 30명, 고창 60명, 부안 60명이다.

청년수당을 지원 대상은 도내 농업,

임업, 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 분야에 6개월 이상 종사자 중 가구 중위소득 180%이하 청년(만18세 ~ 만39세)이다.

또한 전북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공고일 현재 전북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신청 희망자는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누리집(td.ewel.com) 또는 전북청년허브센터(www.j2030.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16일부터 2월 24일까지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30만 원씩 1년간 신용(체크)카드 연계 포인트 방식으로 수당이 지급된다. 건강관리, 자기개발, 문화레저 등 사용 가능 업종에 해당하는 도내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전북도는 그간 참여자들의 만족도 및 정책 선호도가 높았던 만큼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성장을 돕고,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홍석 도 기획조정실장은 “민선 8기 공약 전북 청년 합성 패키지 사업의 첫 번째인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본격 추진을 시작으로, 도내 청년들이 일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돕겠다”며, “사업 대상이 3,000명으로 확대된 만큼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